신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요즘,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울한 화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신나는 세상이 곧 올것이라고 믿습니다. 훨씬 어려웠던 시기도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우러진 신나는 세상, 한화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슴에 남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한화

http://www.hanwha.co.kr 더욱 상세한 그룹소개 및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화 그 룹

會長 金 昇 淵

대 성 상 사
(427호)

社 長 **金 深 淵**

- 中央宗親會 理事
- 襄景公派 判事公 16代孫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37
職場 : 744－4890, 766－3648
自宅 : 766－5233

金科元神經外科醫院

院長 醫學博士 **金 科 元**

- 中央宗親會 副會長
- 襄景公派 進士公 15代孫
- 全南光州地域 宗親會長
- 光州廣域市 醫師會名譽會長
- 光州全南 佛敎信徒會長
- 光州博物館會 會長

病院 : 光州廣域市 東區 錦南路5街 101
電 話 : (062) 228－2471
自 宅 : (062) 2223－7200

대 문 목 재(주)

미송·합판·건축재·가구재

代表理事 **金 都 淵**

- 中央宗親會 理事
- 襄景公派 判事公 16代孫

인천시 서구 가좌1동 178
전 화 : (032) 577-7733, 578-7878, 573-1877
FAX : (032) 579-1870

<전 문 공 사 업>

合 同 技 工 社

代 表 **金 東 胡**

- 中央宗親會 理事
- 襄景公派 谿谷公 13代孫

사무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05-6
전 화 : 409－7723
FAX : 409－7726

聞慶市議會 **金 沅 杰**

- 中央宗親會 副會長
- 襄景公派 判事公 18代孫
- 嶺南宗親會 理事
- 博約會 安東支會長

事務室 : 安東市 雲豊洞 116-29
電 話 事務室 : (0571) 54－1773
自 宅 : (0571) 55－4197

광 일 공 업(주)

대 표 **김 광 재**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능리 34-3
전 화 : (0331) 34－3171~2
FAX : (0331) 35－4518

聞慶市議會 議長 **金 大 永**

- 中央宗親會 理事
- 襄景公派 翊贊公 16代孫
- 聞慶市議會議長
- 聞慶宗親會 會長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 316
電 話 事務室 : (0581) 71－5588
自 宅 : (0581) 71－5500

(주) 근 하 공 영
(주) 홍 인 운 수

대 표 **김 삼 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07-121
전 화 : (02) 972－2331

순·김 뿌리의 캠페인

경제 국난시대에 즈음하여
신토불이의 정신으로 우리 종친들의 사업을 도웁고자 결집된 힘을 모으자.
"우리 종보에 게재된 광고란의 종친들의 사업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는"

〔예〕 1) 차량소유 종친들은 **한 방울의 기름도 한화에너지를** 이용하자.
2) 자라나는 우리 종친 자녀들에게 **빙그레 우유와 제품을** 애용하자.

위와 같은 거족적인 우리 문중의 결집된 협조정신을 발휘하여 경제국난에 대처한다.

清溪電業株式會社

電氣工事·消防設備工事·受配電盤·設計製作
(動資部承認 第1種電氣工事業 193號)

代表理事 **金 文 載**

● 中央宗親會 副會長
● 典書公派 寧州公 19代孫

서울特別市 中區 水標洞 11-7(淸溪빌딩)
本社電話 : 265-6558, 275-0732~3
工場電話 : 877-6227
自宅電話 : 877-6244

鳥嶺産業株式會社

社長 昭庵 **金 喆 熙**

● 中央宗親會 副會長
● 襄景公 忍百堂 14代孫
● 서울宗親會長

서울特別市 江南區 道谷洞 456-8
電 話 : (02)572-5059, 573-5968
自 宅 : 서울特別市 江南區 狎鷗亭洞 現代Ⓐ 77-803
電 話 : (02)543-5439

(株)東南特殊運輸
(株)東 南 商 運

代表理事 **金 東 洙**

● 中央宗親會 理事
● 襄景公派 監察公 17代孫

전남 순천시 서면 동산리 544번지
사무실 : (0661)755-0124~5
FAX : (0661)755-0188
자 택 : (0661)52-8441
호 출 : 012-610-8913
휴대폰 : 011-622-3125
(특수화공약품운송전문) (16K 18K 20K 28K)

法務士 **金 東 吾**

● 中央宗親會 副會長
● 襄景公派 判事公 17代孫
● 聞慶宗親會 會長 歷任

事務室 : 聞慶市 店村洞 244-8
電話 : 事務室 (0581)555-4887~8, 2740
自 宅 (0581)555-4031

내외합동법률사무소

中央宗親會 法律顧問
辯護士 **金 亨 民**

● 中央宗親會 理事
● 순금회 總務會務委員
● 節齋公 18代孫
● 辯護士

事務室 : 瑞草區 瑞草洞 1678-2 동아빌라트 2동 403호
電 話 : (02)3472-7755
FAX : (02)3472-4561

한서화물자동차(주)

호남 정기화물
한서택배제주특송

會 長 **金 相 容**

● 中央宗親會 理事
● 襄景公派 南隱公 16代孫

광주광역시 서구 양3동 397-13
전화 : (0652)211-1271~2
(02)209-6114
(02)571-55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6
한국화물트럭터미널내 호남정기화물자동차(주)

르기를 「50세에는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않다」고 하였는데 전하께서 춘추가 거의 50이 되셨고 하물며 상체(上體)가 편찮으심에 있어서랴, 어찌 진선(進膳)을 이렇게 박하게 해야 옳겠습니까. 전하께서도 일찍이 태종의 어선을 친히 보살피셨으니 아실 터이지만 지금 어선이 이와 같이 박한데 동궁의 어선을 살피는 마음이야 그 어떠하겠습니까. 청컨대 신등의 소망을 좇으시옵소서』

그러나 세종은 『경들이 비록 반복해 말한다 해도 나는 끝내 듣지 않으리라』고 단호히 거절한다. 참으로 백성을 사랑할줄 아는 성군과 그런 성군을 제대로 보필하는 충성스런 헌신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세종은 눈병을 치료하며 휴양하기 위해 초수리에 내려왔으면서도 한시도 정사(政事)를 놓지 못하였으니 윤 7월 26일에는 김종서 등 호종제신들을 불러 전법(田法)을 개정하려는 뜻을 전하고, 전제상정소 제조인 예문관 대제학 정인지(鄭麟趾)가 당도하는대로 함께 의논해 아뢰도록 한다.

그래서 윤 7월 28일 정인지가 서울로부터 당도하자 행제소에 이미 먼저 와 있던 왕세자는 김종서 등을 불러 함께 전품(田品), 즉 농토의 등급을 개정하는 일을 의논하게 된다. 농토의 등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공법(貢法)을 제정하기 위해서인데 이를 실사(實査)하기 위해 김종서 등으로 하여금 8월 1일에는 부근의 청안현(淸安縣)에 나가 볏곡을 직접 살펴보게 하기도 한다.

마침 이때 회령 성내에 들어와 살던 소로가무(所老加茂)라는 여진인이 두만강 밖에 거주하는 그 부모를 봉양한다는 핑계로 그의 내지인(內地人) 처와 함께 야인 본거지로 돌아가겠다는 청을 해오자 함길도 도절제사 김효성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묻는 장계를 올린다. 8월 5일 이 문제를 의논하는 자리에서 김종서는 우참찬 이숙치와 함께 돌려보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북변의 일에 관한한 김종서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는 세종은 곧 그 의견을 좇아 돌려보내지 말라는 전교를 내린다.

그리고 8월 12일에는 공법과 세금의 많고 적은 것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김종서는 제언(堤堰) 축조의 필요성을 역설하게 되는데 동석했던 정인지도 경상도에 제언이 많아서 토지의 비옥도가 타도의 배가 된다고 거듦으로써 세종은 가뭄 극복을 위해 이를 정책적으로 실시해가기로 한다.

그래서 이 직무를 감당해낼 만한 인물로 산술에 정통한 이순지(李純之, ?~1465)와 김담(金淡, 1416~64)을 지목하니 김종서는 이런 큰 일을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맡기면 영이 서지 않으니 정인지에게 총책임을 지우고 이순지와 김담을 종사관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아뢴다. 세종도 이를 찬성하고 이순지를 서울로 불러올려 일을 시작하게 하였다.

김종서는 다시 8월 13일에 한확, 이숙치, 이승손과 함께 금년은 가뭄피해가 극심하니 농토의 등급을 매기는 일은 내년으로 미루자고 세종께 아뢴다. 세종은 즉시 이를 가납하고 도순찰사인 정인지에게 유서(諭書)를 내려 충청도 비인과 경상도 함안·고령, 전라도 광양·고산을 제외한 그밖의 지역은 전품을 개정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이때 대마도 도주(島主) 종정성(宗貞盛)이 우리측에서 그가 잡아보낸 왜구를 처단한 일로 항의하는 사절을 보내게 되자 김종서는 이숙치와 함께 청주로 가서 그 사신인 정대랑(井大郎) 등과 만나 이를 위로하니 8월 22일의 일이었다.

이곳 초수리에서의 휴양생활이 세종의 건강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자 의정부 대신들을 9월 22일까지 작정한 휴양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행재소의 호송대신들에게 서면(書面)으로 전한다. 이에 김종서 등은 8월 24일에 세종께 조금 더 머무실 것을 청하지만 세종은 애초에 작정한대로 60일을 넘기지 않을 터이니 9월 22일에 환궁할 준비를 하라고 잘라 말한다.

그런데 9월 7일에는 초수리 북산(北山)에서 옥같은 돌을 발견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세종이 옥공(玉工)을 불러다가 파보게 하니 진옥(眞玉)이라 한다. 이에 김종서 등은 『예천(醴泉)의 곁에서 아름다운 옥까지 난다 하오니 신등은 기쁨을 이길 수 없어 하례드리나이다』하고 하례한다. 이에 대해서 세종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기뻐한다.

『옥이 물건이 되는 것은 악기(樂器)로 소중히 쓰이기 때문이다. 이로서 「악기(樂記)」에서 옥 논하는 것을 중요하게 달았고, 공자도 말씀하시기를 옥은소리 있는 것으로 고귀함을 삼는다고 하셨으며, 옛 글에도 이르기를 옥의 귀한 것은 소리가 있다고 하였다. 성천과 의주의 옥은 악기에 맞지 않고 중국은 곤륜산에서 나는데 다행히 흘러서 우리나라에까지 이르렀구나. 이제 이 옥이 돌속에 있고 또 소리가 있으니 나는 그것이 진짜 옥인가 싶다. 대저 옥의 산출은 실로 예악(禮樂)에 관계되므로 쓰임새가 지중(至重)하니 나는 사실 매우 기쁘다』 이렇게 초수 곁에서 미옥(美玉)까지 산출되는 경사를 맞게 되자 세종과 호종 대신들은 매우 기분이 좋게 되었다.

그래서 9월 15일에 도승지 이승손 등은 조금 더 이곳에 머물러 계시다가 10월초에 길일을 잡아 환궁하자고 청하지만 결단력이 남달랐던 세종은 이를 윤허하지 않고 처음 계획대로 진행하라 이른다. 그래서 9월 22일에 어가를 돌려 상경하는데 이렇게 서둘러 떠났어도 24일 죽산에서 양지로 가는 도중에 폭풍설을 만나 고생한다.

그러나 경기도 관찰사 허후(許詡)와 도사(都事) 윤면(尹沔), 찰방 이백견(李伯堅) 등이 잘 구호하여 사람과 가축이 얼어죽는 불상사는 모면하였다. 그래서 9월 26일에는 어가가 경복궁으로 무사히 환궁한다. 김종서가 이 행차에 시종 시위하여 호종했던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때 김종서의 나이는 62세이고 세종의 나이는 48세였다.

김종서는 이해 10월 9일과 11일에 의정부와 육조의 대신들이 합좌한 어전회의에서 도둑을 방비하는 대책을 의논하게 되자 떼도둑들이 강도와 살인을 자행하는 사례를 들며 이들을 법대로 극형에 처할 것을 강도 높게 주장한다.

세종은 도둑이 일어나는 것은 자신이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마련해주지 못하여 살 곳을 잃었기 때문이라 자책하면서 가능한한 형벌을 가볍게 하여 이들에게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중신들은 한결같이 이들이 도둑질하는 것은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치부와 사치를 위해서 그런 것이니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생활이 풍요로워지자 가죽신의 수요가 급증하여 소가죽 값이 급등하므로 소나 말을 훔치는 소도둑이 극성을 부렸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도둑을 잡고보니 한달새에 말 세필과 소 두마리를 도둑질해 죽인 경우도 있고 한 마을의 농우를 씨말린 경우도 있었다 한다.

그리고 10월 26일에는 대마도주의 사신으로 온 왜인 정대랑(井大郎)이 우리 벼슬 받기를 청하는 일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이를 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전에 벼슬을 주었던 그의 부친은 우리나라에 와서 숙위(宿衛)를 했던 공로가 있었고 조전등구랑(早田藤九郎)은 그 조상이 우리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인데 정대랑은 이런 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벼슬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대외문제에서 대개 김종서의 의견을 존중하는 세종은 이 역시 그대로 따른다.

또 11월 29일 집현전 수찬 이선로(李善老)가 궁성 서쪽에 연못을 파서 영제교(永濟橋)로 물을 끌어들이고 개천물에 냄새가 나거나 더러운 물건을 버리지 못하게 하여 물을 청결히 하자고 계청하자 세종이 그 대책을 의정부와 육조에서 의논하여 아뢰게 하니 김종서는 영의정 황희, 우의정 신개(申槩, 1374~1446), 좌찬성 하연(河演, 1376~1453), 우찬성 황보인 등과 의논하여 다음과 같이 아뢴다.

『저수지 파는 일은 내년 가을을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개천물은 각 부(部)와 한성부(漢城府) 낭청(郎廳),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 낭청이 성내의 각 집을 나누어 맡아서 냄새나고 더러운 물건을 던져버리지 못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도록 힘쓰며, 한성부 당상(堂上)과 금화도감 제조(提調)로 하여금 항상 살피게 하고 사헌부로 하여금 무사로 규찰 검거케 하시옵소서』

이때도 서울 도성안의 환경문제가 심각하였던 모양이다. 오물 투척으로 청계천 물이 오염되어 불결해지니 관청에서 각 가정을 분담 관리하여 이를 책임지고 방지하자는 의견이다. 지금은 청계천이 아니라 한강이 썩어가고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견을 거울 삼아야 할 듯하다. 관료사회가 아니라 민주사회인 현재에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오물 투척을 막아낼 수 있을까. 관청의 규제가 아니라 민간 상호규제에 의해서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덕률과 법률 모두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의 조성이 급선무일 듯하다.

세종은 이때 우수한 병기(兵器)제조가 강병책의 기본임을 절감하고 화포와 총통의 시험제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으니 10월 11일에는 진양대군 유와 광평대군(廣平大君) 여(1425~44), 금성대군(錦城大君) 유(瑜, 1426~57), 동부승지 이사철(李思哲, 1405~56), 병조참판 성념조(成念祖, 1390~1450), 군기감(軍器監) 제조 이순몽(李順蒙, ?~1449)을 양화나루에 보내어 배 위에서 이를 시험하게 하고 10월 20일에는 왕세자가 직접 양화나루에 가서 화포의 사정거리를 측정하며 거함 3척을 왜선(倭船)으로 꾸미고 이를 3척의 우리 군함이 격파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그리고 11월 1일에는 화포 제조를 직접 담당하고 있던 군기감 제조 이천(1376~1451)이 우리나라 무쇠가 성질이 강하고 질기지 않아 주조가 쉽지 않은데 북방 야인들은 무쇠를 연철(軟鐵)로 바꿔 군기를 만드는 기술이 있다하니 이런 기술을 가진 자들을 초빙해다 이를 익히게 해달라고 계청하니 세종은 예조에서 이를 처리해주라고 김종서에게 맡긴다.

그리고 10월 22일에는 지난해부터 시작해온 세종과 왕비의 어진(御眞) 도사(圖寫)와 태조, 태종의 어진 개화(改畵) 작업이 일단락 되는데 이 역시 기종서가 예조판서로서 총괄하여 이루어낸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종서는 이런 즐겁고 보람이는 일만 맡은 것은 아니었다. 11월 24일 세종의 국구부인, 즉 장모인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순흥(順興) 안씨(安氏)가 돌아가자 이의 장례 절차를 총괄해야 했고 12월 8일 세종의 제5왕자인 광평대군 여가 불과 20세로 요절하였을 때와 다음 해인 세종 27년(1445) 1월 16일에 세종의 제7왕자 평원대군(平原大君) 임(琳), 1427~45)이 19세로 요절하였을 때도 그 장례를 도맡아 처리해야 하였다.

☞ 〈다음 호에 계속〉

찬집을 명하고 3월 3일에는 왕비와 함께 강원도 이천(伊川) 온정(溫井)으로 휴양을 떠난다.

김종서도 여러 대신 중신들과 함께 어가를 수행하여 이천으로 가는데, 세종은 여기서 3월 17일에 직제학(直提學) 이선제(李先齊)로 하여금 홍천사 사리각 경찬회 소문(疏文)을 지어 바치게 하고 성달생을 행향사(行香使)로 하여 환관 최혼(崔混)과 함께 홍천사로 올려보낸다. 3월 24일에 개최되어 5일 동안 이어지는 경찬법회를 주관하기 위해서였다.

홍천사 경찬법회가 무사히 끝나자 4월 2일 김종서는 황보인과 함께 이천의 지세가 산이 높고 물살이 세차서 장마를 만나면 수재가 염려되니 장마철이 되기 전에 상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아뢴다.

세종은 이 말을 가납하여 4월 16일에 어가(御駕)를 돌려 상경길에 오르는데 5월 1일에는 왕비와 함께 경복궁으로 환어한다. 그리고 유신들이 다시 시끄럽게 할까보아 5월 3일에는 안질을 핑계로 왕세자에게 서무를 대신 결재하라고 한다.

그런데 7월 29일에 김종서 후임으로 함길도 도절제사를 맡아 나가 있던 이세형이 임지에서 갑자기 죽는다. 이에 부랴부랴 김종서는 일찍이 함길도 조전참절제사(助戰僉節制使)를 지낸 적이 있는 김효성(金孝誠, ?~1454)을 천거하여 8월 3일 함길도 도절제사로 내려 보낸다.

그리고 다음해인 세종 25년(1443) 1월 7일에는 평안도 도절제사로 내려가 있는 이징옥의 아들 둘에게 벼슬을 내려달라는 청을 세종께 드린다. 외직에서 오래 수고한 공로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토록 김종서는 자기 사람을 아끼고 키워주는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47세가 된 세종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어 수릉(壽陵 : 생전에 미리 만들어 두는 임금의 무덤) 자리를 찾게 하니 김종서는 진양대군(晉陽大君 : 뒷날 首陽大君) 유(瑈, 1417~68)와 안평대군(安平大君) 용(瑢, 1418~53) 등과 함께 태종 헌릉(獻陵)이 있는 대모산으로 가서 헌릉의 서쪽 언덕을 찾아내어 수릉자리로 정한다. 김종서는 이해에 회갑을 맞는 61세의 노인이었다.

세종은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어온 까닭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흔히 시달리는 눈병(眼疾)과 다리아픈 병(脚痛)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는 온천 목욕을 자주하여 병을 다스리는데 세종 23년(1441) 3월 17일에 온양온천에 와서는 그 치료 효과가 컸었기 때문에 4월 17일에 그때까지 온수현(溫水縣)이었던 온양을 온양군(溫陽郡)으로 승격시켜 온양이란 이름이 새로 생겨나게 하기도 하였다. 이때도 김종서는 형조판서로 어가(御駕)를 호종하여 온양에 가 있다가 돌아왔었다.

그런데 세종은 25년(1443) 봄에도 다시 각퉁(脚痛)이 도져서 온양으로 휴양을 떠난다. 지난해는 강원도 이천온천으로 갔었는데 아무래도 그 효험이 온양온천만 못하였던 듯하다.

그래서 3월 1일에는 왕비와 함께 서울을 떠나는데 왕세자와 대군·제군이 호종하고 의정부와 육조, 대간에서는 각기 한 사람씩 선발하여 어가를 호종케 한다. 이때 김종서는 예조판서의 자격으로 육조를 대표하여 어가를 따라 온양온천으로 가게 된다. 아마 환갑이 된 김종서를 위로하기 위해 세종이 특별히 배려한 탓이었을 것이다.

세종은 온양에서 온천 휴양을 무사히 마치고 4월 3일 온양을 떠나 4월 6일 경복궁으로 환궁하는데, 상경한 다음 4월 17일에는 병을 핑계대고 세자에게 섭정하도록 한다는 교지를 승정원에 내린다.

이에 김종서는 육조의 다른 판서 참판들과 함께 그 불가함을 아뢰고 예조참판 허후(許詡, ?~1453)와 예조참의 박연(朴堧, 1378~1458)과 함께 연회에 여악(女樂)을 쓰지 말고 10세 전후의 남자아이로 구성된 남악(男樂)을 쓰자고 건의한다. 그러나 세종은 오랜 전례를 갑자기 바꿀 수 없다고 하여 이 건의를 일단 유보한다.

그리고 김종서는 9월 11일에 과거시험에서 정기적인 식년시(式年試) 외에 별시(別試)를 자주 베풀게 되니 선비들이 경서(經書)를 읽지 않아 인재가 고갈되므로 별시를 줄이고 식년시에 33명 뽑는 제도를 고쳐 50명씩 뽑게 하자고 건의하나 세종이 별시를 줄이는 것은 동의하되 인원 늘리는 것은 반대하여 실행되지 않는다. 문과 출신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9월 24일에는 함경도 종성사람 김귀생(金貴生)이라는 자가 김종서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회령 사람 노겸(盧謙)과 정헌(鄭軒), 김삼보(金三寶) 등이 서로 말하기를 「4진(鎭)을 설치하고 백성을 옮겨다 채워서 고생하게 하는 것은 찬성 황보인과 판서 김종서이다. 장차 마천령이나 철령 등 으슥한 곳에 숨어 있다가 황보인이 지나가면 쏘아 죽이고 또 서울로 가서 종서의 집 곁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가 종서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려 쏘아 죽이겠다」고 하므로 와서 고변한다」

김종서는 이 말이 허무맹랑하므로 곧 세종께 아뢰고 김귀생을 포박하여 본도로 보내어 문초하게 하니 상을 받으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자백하였다. 당시 김종서와 황보인이 북변에서 얼마나 공명을 떨치고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촌극이었다.

이해 11월 13일에는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가 설치되어 논밭의 등급을 조사하는 사업이 시작되었고 12월에는 세종이 고전(古篆)을 모방하여 언문(諺文) 28자(字)를 몸소 만들어내어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이름하며 집현전 학자들로 하여금 그 글자를 만들어 낸 원리(原理)와 사용방법 등을 더 자세히 연구하게 한다.

그래서 다음해인 세종 26년(1444) 2월 16일에는 당시 운서(韻書)의 기준이 되어 있던 「홍무정운(洪武正韻)」을 집현전 교리 최항(崔恒, 1409~74), 부교리 박팽년(朴彭年, 1417~56), 부수찬 신숙주(申叔舟, 1417~75), 이개(李塏, 1417~56) 등으로 하여금 훈민정음으로 번역해 내게 하는데 왕세자가 수양대군, 안평대군과 함께 그 일을 직접 감장(監掌)하여 세종의 결재를 받게 한다. 이에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崔萬里)가 2월 20일 언문(諺文) 제작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장문의 상소를 올리게 되고, 세종은 이를 조목조목 따지며 엄하게 꾸짖어 물리친다.

한편 세종은 늘 안질로 고생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물을 찾고 있었는데 1월 27일에 청주백성이 청주에서 호초맛이 나는 초수(椒水)를 발견하였다고 고해오므로 장차 이곳으로 행행(行幸)하여 안질을 치료하고자 하여 내섬시(內贍寺) 윤(尹) 김완지를 보내어 이곳에 행궁을 짓게 한다. 그리고 추위가 풀리자 2월 28일에 왕비와 함께 이곳으로 행행하는데 왕세자도 어가를 따른다.

세종 일행이 3월 2일에 초수리 행궁에 도착하여 휴양 치료하게 되자 김종서는 3월 11일에 이곳 초수리 행재소(行在所)로 가서 기거(起居)를 묻고 주과(酒果)를 올리며 초수가 때맞추어 솟구쳐 나온 것을 경하한다. 여기서 세종은 60일간을 머물며 휴양 치료하고 5월 3일에 출발하여 5월 7일에 환궁하는데 그 사이 상당한 효험을 보았던 듯하다. 4월 10일에는 성삼문(成三問, 1418~56)의 조부인 판중추원사 성달생(成達生, 1376~1444)이 호종(扈從)해 왔다가 초수리 행재소에서 69세로 폭졸(暴卒)하는 불행이 있기도 하였다.

세종은 이 시기 불교를 숭신할 마음이 점점 깊어져 벌써 지난해 4월 27일에 양주 회암사(檜巖寺) 주지 천봉(千峯) 만우(卍雨, 1357~?)를 홍천사 주지로 옮겨 오게 하였었다. 내외경전에 박통하고 시서(詩書)에 능하여 유석(儒釋)의 사표가 될만한 고승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를 통해 대장경에 의방(醫方)이 있으며 그 관본이 홍천사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5월 13일 이를 가져오게 하여 이를 읽으려 하니 우승지 유의손(柳義孫, 1398~1450)이 혹시 불교경전을 숭신한다는 오해가 있을지 모르므로 의관(醫官)에게 살펴보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렇게 한다. 그리고나서 5월 26일에는 만우선사에게 의복 네 벌을 하사한다.

한편 김종서는 여름 가뭄이 극심하자 6월 21일 서연(書筵)에 우빈객(右賓客)으로 입시하여 원옥(怨獄)을 풀어 가뭄을 구할 것을 세자에게 고함으로써 역(役)을 피해 달아난 죄로 조지서(造紙署)에 배정되어 도침(搗砧) 역(役)을 지고 있던 양가 자제들을 풀어준다. 그리고 7월 4일에는 진양대군과 세자에게 소금과 물고기 및 쇠의 이익이 막대한 것을 말하고 이를 국가에서 관장할 것을 권하며 백성들에게 국가에서 곡식을 대여해서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사창(社倉)법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런데 세종은 점점 건강에 대해 자신감을 잃어가는 듯 사후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나가니, 7월 17일에는 예조판서 김종서와 호조판서 박종우 등에게 명하여 장생전(長生殿) 터에 장수기소(藏壽器所)를 짓게 하고 수릉에 부장(副葬)할 수기(壽器)들을 만들어 보관하게 하며, 헌릉 서쪽 언덕을 보토하여 수릉터로 닦아놓는다. 그리고 윤 7월 15일에는 다시 왕비와 더불어 청주 초수리로 휴양을 떠난다.

이때도 김종서는 예조판서로 어가를 따라 호종(扈從)하는데, 이해 서울 부근은 가뭄이 극심하여 세종은 전국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일절 공물(貢物)의 진상을 올리지 말라는 어명을 내려서 어선(御膳 : 임금께 올리는 음식)이 초라할 지경이었다. 그런데 실제 충청도에 내려와 보니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피해가 크지는 않았다. 그래서 김종서 등은 7월 20일에 풍년이 들었다고 하는 전라·경상 양도의 진상(進上)만이라도 허락하도록 세종께 계청하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조판서 한확(韓確, 1403~56), 예조판서 김종서, 우참찬 이숙치(1390~1446)가 여러 승지들과 함께 아뢰기를 『신등은 항상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벼곡이 거의 다 여물지 않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어가를 따라서 지나온 곳은 벼곡의 충실함이 이와 같습니다. 전라·경상도는 꽤 잘 여물었다 하니 그 벼곡의 풍성함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청컨대 전라·경상 양도의 진상을 허락하옵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 거둥은 본래 백성들에게 폐가 없게 하려 하였으니 경 등은 말하지 말라』

그 다음날에도 김종서는 여러 시종신들과 같은 내용으로 세종께 그 허락을 간청하는데 세종은 금년 기근이 태종 초년과 같다고 생각했더니 요즘 지나온 곳이 모두 잘 여물어서 매우 기쁘지만 어찌 기쁘다고 해서 진상을 허락할 수 있겠느냐고 단호히 그 청을 물리친다. 이에 김종서 등은 물러서지 않고 다시 이렇게 간청한다.

「지금 어선의 박(薄)함이 이와 같은데 이르렀으니 신등은 마음에 실로 유감스럽습니다. 또 옛 사람이 이

■ 종친께 알립니다. 1997年 11月 14日 節齋公의 功績顯揚紀念會를 行事하면서 우리 門中을 가장 빛낸 분의 功績을 再照明하여 우리 後孫들로 하여금 그 분의 고결한 희생을 만분의 일이라도 갚아드리는 계기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기에 그 분의 생애를 극명하게 잘 표현한 글을 1997年 1月 3日부터 20회에 걸쳐 한국경제신문에 주간연재로 실은 바 있는 작가 崔完秀씨의 "忠義列傳"을 발췌하여 종보 제16호부터 5회에 걸쳐 싣습니다. 전국에 계신 종친께서는 읽어 보시고 우리 後孫들이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느끼시는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실주〉 ■

忠義列傳 ❷

節齋 金宗瑞

그러나 세종은 끝내 참수형의 집행만은 허락하지 않았다. 간계로 자신을 농락한 상대를 극형에 처한다는 것은 성군으로서의 자존심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김종서는 박호문의 참소로 이렇게 큰 곤경을 겪었지만 세종의 총애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

김육(金堉, 1580~1658)이 지은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 권 3 김종서조에 의하면 세종은 김종서의 북변 개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한다.

「비록 과인이 있다 하더라도 종서가 없었다면 족히 이 일을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이고, 비록 종서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 과인이 없었다면 이 일을 주간하고 고집하여 돌이키지 않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김종서는 세종의 이런 신임과 총애에 보답하기 위해 이해 10월에 일군(一軍)을 거느리고 두만강을 건너 야인의 땅으로 진격해 들어간다. 저들을 제압하여 옛땅에 돌아와 살게 하려는 의도로부터 나온 전략이었다. 왕명을 받들지 않은 일로 물의가 있었으나 세종의 특명으로 이는 불문에 부치게 된다. 김종서나 세종이 모두 미안한 마음의 표시를 이렇게 하였던 듯하다.

이에 세종은 김종서를 더 이상 변방에 머물게 두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였던지 12월 3일 인사발령에서 김종서를 형조판서로 임명하여 내직으로 불러 올린다. 김종서의 나이 58세이고 세종은 44세이다.

이때 후임 함길도 도절제사로는 이미 지난해 6월 23일자에 도관찰사로 발령받아 나가서 김종서로부터 북변의 방수 요령을 전수받고 있던 이세형이 임명된다.

그러나 세종은 김종서가 떠난 북변이 불안하여 견딜 수 없었던 듯 바로 다음날인 12월 4일에 김종서에게 신구교체 이후에도 북방의 책임은 모두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신임 도절제사에게 방어 전략을 일일이 전수하도록 하라고 신신당부하는 전지를 내린다.

어떻든 김종서는 이해를 넘기지 않고 상경하여 형조판서의 직임을 맡게 되는 듯 세종 23년(1441) 1월 18일 정사에는 형조판서의 자격으로 입시하여 오도리족의 방어대책을 의논한다.

세종은 비록 김종서를 서울로 불러 올렸지만 북변의 일은 끝까지 그에게 맡겨야 겠다고 생각하였던지 형조판서로 정사에 처음 참여한 그 다음날인 1월 19일에 병조에 전지하여 지금 이후로 함길도의 사변(事變) 및 방어하는 등의 일은 반드시 형조판서 김종서와 함께 의논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법률(法律)에 능통하였던 그에게 법률 정비의 책임을 맡기기 위해 사율원(司律院) 제조(提調)의 책임을 겸직하게 하였으니 형조판서의 자리를 맡긴 것도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 소임을 완수하자 세종은 이해 11월 14일에 김종서를 예조판서 자리로 옮긴다. 이해 7월 23일에 왕세자빈인 안동권씨가 원손(元孫)을 탄생시키고 그 다음날인 7월 24일에 산후통(産後痛)으로 돌아가니 9월 21일 현덕빈(顯德嬪, 1418~41) 안동권씨의 장례를 치른 다음 세종은 28세 밖에 안된 왕세자(1414~52)를 재혼시키기 위해 9월 25일 왕세자 가례색(嘉禮色)을 설치하고 금혼령을 내려 왕세자빈의 후보를 물색하게 된다.

그래서 10월 19일에는 왕비와 함께 사정전에 나가 후보로 뽑혀 온 30명의 처녀 중에서 일차 간선(揀選)을 친행한다.

세자의 혼례는 국가의 대례이니 이를 담당할 예조의 장관은 가장 신임할만한 인물이 아니면 안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김종서를 예조판서로 옮겨놓은 다음 12월 7일에 다시 사정전에서 왕비와 함께 재간택(再揀擇)을 친행하여 판서운관사(判書雲觀事) 문민(文敏)의 따님과 예빈직장(禮賓直長) 권격(權格)의 따님을 뽑는다.

세종은 권격의 따님이 마음에 들었던 듯 한데 그 맏따님이 이미 세종의 제4 서왕자(庶王子)인 한남군(漢南君) 어(瑜)에게 출가해 와 있었으므로 이제 그 막내따님으로 동궁빈을 삼게 되면 형제가 동서사이가 되니 그것이 예법에 맞는 것인지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세종은 북위 때 최호(崔浩) 형제가 곽일(郭逸)의 두 딸을 각기 아내로 삼았던 고사를 이끌어, 그 타당성을 가례색 제조(提調)인 김종서 등에게 타진해 본다. 김종서는 남지(南智)와 함께 최호는 성현이 아니니 그를 본받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한다.

그래서 그랬던지 끝내 왕세자 가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재간택까지 치르고 나서 가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예가 아니므로 귀족사회로부터 엄청난 저항이 있었을 터인데 소리없이 이를 무마하여 표면화시키지 않은 것을 보면 김종서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만한 능력이 있었기에 세종대왕은 그렇게 그를 믿고 항상 큰 일을 맡기었었던가 보다. 세종은 이 일 말고도 김종서에게 예조판서를 맡겨야 할 또다른 이유가 있었다.

이제 45세의 장년기로 접어들면서 학문도 심오해지고 세상 경륜도 쌓이게 되자 세종은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점점 깊어져 갔던 것이다.

그래서 태종이래 실시해온 가혹한 억불정책을 서서히 완화해 가고자 하는데 이 일이 예조에 속한 일이므로 김종서를 그 자리에 앉혀 그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헤아려 처리해 가게 하려 했던 것이다. 이에 세종은 온천욕(溫泉浴)으로 겨우 지탱하는 자신과 왕비의 건강과, 앞서 간 세자빈의 명복을 빌기 위해 태조 원찰인 흥천사(興天寺) 사리각(舍利閣)을 보수하고 거기서 경찬법회(慶讚法會)를 베풀려고 한다.

드디어 11월 25일 도진무(都鎭撫) 성달생(成達生, 1376~1444)을 불러 흥천사 사리각 경찬회에 쓸 물품을 의논하게 되니 윤 11월 7일 사헌부 장령 홍심(洪深)이 이의 정지를 계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헌부와 사간원 집현전 성균관 등에서 혹은 합계(合啓)하기도 하고 혹은 단독으로 상소하기도 하며 매일같이 이의 중지를 청한다. 불교 숭신(崇信)의 실마리를 열어놓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종서는 이런 물의를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윤 11월 15일 육조의 의견을 종합하여 병조판서 신인손(辛仁孫, 1384~1445)과 함께 사리각을 고쳐 세우는 것은 좋으나 경찬법회만은 중지시키자는 타협안을 제시한다.

자신들이 세종을 가까이 모셔오면서 즉위이래 일정일사(一政一事)도 실수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었는데 이번 일만은 교화(敎化)에 허물이 되니 직분상 충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종은 이런 간략한 불사는 어느 시대에도 있었다며 이런 의견을 일축해 버린다.

그 다음날인 윤 11월 16일에도 김종서와 신인손은 백성들이 불사를 베푸는 것은 법으로 금하면서 임금이 먼저 법을 무너뜨리면 그 폐단을 바로잡을 수 없다며 다시 한번 경찬법회의 중지를 간하지만 세종은 듣지 않고 이를 감행할 뜻을 보인다. 이에 사헌부에서는 다음해인 세종 24년(1442) 1월 5일에 불교 승단 생활의 기본이 되는 안거(安居, 여름 4개월과 겨울 4개월 동안 절에 앉아 수행 정진하는 것, 夏安居 冬安居라고 각각 부른다)를 금지시키자는 극단적인 요청까지 하지만 세종이 이를 들어줄리가 없다.

한편 세종은 어려서부터 책을 너무 많이 읽어 늘 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사리각 경찬법회 문제로 유신들이 계속 시끄럽게 하자 귀찮아서 2월 24일에 안질이 날로 심하여 정사를 돌볼 수 없으니 왕세자로 하여금 이를 돌보게 하겠다는 뜻을 대신들에게 전한다. 그리고 3월 1일에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中央宗親會를 訪問하신 분

1998年 3月 20日 現在

本 中央宗親會 宗報編輯室을 수시로 찾아오셔서 從事者를 慰勞하시고 激勵하여 주신 宗親 여러분과 來賓들에게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宗報編輯室〉

芳名	住所	電話
김 완 수	마포구 상암동 482	304-2232
김 인 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뉴타운 삼호Ⓐ 11-709	0343-85-5515
김 영 일	안산시 월피동 448 현대Ⓐ 203-1001	0345-87-5145
김 명 환	노원구 상계9동 주공Ⓐ 1208-411	933-8801
김 동 호	송파구 가락동 171-5 현대7차Ⓐ 101-306	409-7728
김 근 희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941-13	032-461-7730
김 창 순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 746-2	0351-866-3257
김 중 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22-14(10/3)	051-531-7726
김 하 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51-7	051-809-3177
김 동 영	전북 임실군 상계면 후천리	0673-42-7667
김 행 엽	강남구 논현동 62-4 청학Ⓐ C-403	543-6224
김 세 연	고양시 성석동 764	0344-970-2296
김 효 남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전호리 18	0341-86-5993
김 도 연	인천시 남구 주안동 1250 쌍용Ⓐ 9-803	032-421-0636
김 심 연	종로구 종로6가 1-39	766-5233
김 호 남	경북 상주시 성동동 159	0582-34-8811
김 정 수	구리시 수택동 럭키Ⓐ 4-306	0346-553-4600
김 경 남	안산시 선부동 968-9	0345-401-5353
김 형 민	강남구 대치동 한일미도Ⓐ 208-1209	3472-7755
김 진 섭	보령시 미산면 평라리 54	0452-33-4070
김 기 원	공주시 장기면 대교리 1구 275	0416-857-1898
김 정 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928-2 금호타운 105-601	062-373-7167
김 용 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99 효자촌 현대Ⓐ 113-201	0342-702-2667
김 상 응	고양시 내유동 672-11	0344-62-8586
김 학 원	은평구 수색동 355-11	372-6943
김 윤 희	도봉구 창3동 505-14	977-2207
김 동 석	안산시 본오동 871 신안Ⓐ 110-304	0345-408-5519
김 인 선	고양시 일산구 풍동 638-4(7/1)	0344-901-2570
김 인 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265-6(1/3)	051-805-8024
김 삼 근	노원구 공릉동 107-121(근하공영 대표)	972-2331
김 수 영	대전시 중구 태평2동 407 삼부Ⓐ 35-22	042-522-7033
김 원 걸	경북 안동시 하면 신덕리 636	0571-55-4197
김 철 희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77-803	543-5439
김 학 원	은평구 수색동 355-11	372-6943
김 응 순	대구시 북구 산격4동 1498-9	053-941-6865
김 보 연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937-11(5/5)	051-624-5382

〈隨 筆〉

金 文 載
(청계전업·대표이사 사장)

□ 筆者 紹介
1932년 경기도 이천에서 출생
1957년 한양대 전기공학과 졸업
1953년 해군본부 사령실 근무
1956년 대한전업건설 근무
1966년 청계전업 창업 후 대표이사 역임
순천김씨 서울종친회 부회장
중앙종친회 이사·부회장 역임 〈註 : 編輯室〉

人間數學을 새겨본다

자연은 계절과의 조화와 더불어 인간사회를 신비와 같이 변화 현상을 가져다 주는 절대의 순리를 일깨워주면서 향취와 함께 정서와 낭만을 안겨주는 더없는 자극제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계절도 산천초목과 온갖 동물들이 긴잠에서 깨어나 자연섭리에서 어떻게 보면 규칙적일 수도 있고 무질서의 대열속에서 찢고 뺏고 싸우면서 생존을 위한 경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인간생활에서는 知와 無知, 上과 下의 극히 타협적일 수도 있고 비타협적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절충하며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호흡을 하고 있다. 더우기 요즘은 복잡한 사회경제 문제가 우리 주변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압박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보호무역이니 장벽이니 ××항상이니 ××절감이니 ××기술이니 하는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나는 존재하고 있다. 나는 그 선을 어떻게 넘을 것이며 어떻게 버티고 있을 것인가가 큰 과제로 되어 있다. 이것은 다만 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나의 후배들과 우리의 후손들의 영향도 좌우되는 것이니 만큼 나 또한 책임을 버릴 수 없는 시대에 사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이 여타한 상황을 밀고 나가는 데는 간단한 답변이 서지 않는다. 그러나 방법은 어떻게 理智(數)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냐다.

이 자리에서 몇 자 남기고 싶은 것은 친구간 이라든지 주위의 대화속에나 "理財에 밝다"라는 말은 들었어도 理數에 밝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요즘 청소년들의 진학문제는 공부라기 보다 애절한 투쟁의 사회문제가 된 것 같이 數學이 제일 힘겹고 관철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나 역시 지난 옛시절에도 비슷한 것을 엿보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이것으로 우리 민족이 "끈기"와 "인내"는 높이 평가를 하면서도 통찰력과 관찰력은 약하게 지적형성이 된 것이 아닌가 하며 나 자신을 반성해 본다. 그러니까 난제를 극복할려면 풀기 힘든 數學을 풀려고 하는 자세에서 좀 理數的인 인간상을 새겨보는 것이다.

> 요즘 청소년들의 진학문제는 공부라기보다
> 애절한 투쟁의 사회문제가 된 것 같이
> 數學이 제일 힘겹고 관철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요안나(吳明哲) 할머님의 3周忌 追慕式 嚴修

〈族孫 炳鎰〉

2월 24일 오전 9시 30분 대한승공회에서는 정철범 주교님의 미사집전으로 故 요안나 오명철(吳明哲) 할머님의 승천(昇天) 3주기 추모식이 경건하고도 엄숙하게 거행되었는데 이재전 승공회대학 총장님의 간곡하신 설교와 유가족들의 명복을 비는 기도로 진행되었다.

요안나 할머님은 지난 95년 2월 25일 12시에 100세에 천수(天壽)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학같이 승천하시니 평소의 자상하시고 청초하시던 자태는 뵈올 길이 없으나 할머님의 1세기(一世紀) 동안의 이 세상에 남기신 발자취는 모든 사람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안나 할머님은 익찬공파의 가곡공의 12대손인 재민(在民公)과 혼인하여 슬하에 4남1녀를 두시니 하나같이 이들이 출중(出衆)하여 밖으로는 국의를 선양하고 안으로는 국가 경제에 크게 공헌케 하였고 문중도 빛나게 하였으니 위대하고도 장한 어머니로 모든 종친의 추앙을 받아 오셨습니다.

항상 효우정신(孝友精神)이 투철하시고 겨레의 돈목에 관심이 깊으셔서 막내 아드님(金鍾植)이 초대와 2대, 3대에 걸쳐 회장으로 있는 본 중앙종친회를 백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시고 93년 9월 17일 본회를 자진 찾아 오셔서 임직원들을 위로 격려하시고 융성한 오찬까지 내려주시는 등의 마음씨에 새삼 감동하여 마지 않습니다.

요한나 할머님에 3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였던 자부님인 「가락당」을 위시하여 김종식 본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유족 일동은 그 길로 공주군 정안면 보물리의 유택(幽宅)을 찾아 성묘(省墓)하고 고인을 추모하였다.

요안나 할머님의 3주기를 맞이하여 삼가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一無)

贊助金

1. 5	金政壹(廣告費)	200,000
2. 6	담양종친회(贊助金)	500,000
2. 15	김형민(廣告費)	300,000
2. 25	金東胡(贊助金)	1,000,000
2. 26	金行燁(贊助金)	100,000
2. 26	김기원(贊助金)	100,000
3. 2	김인섭(贊助金)	30,000
3. 20	김종식(贊助金)	1,800,000
3. 24	김병일(贊助金)	200,000
合計		4,230,000

任員 年會費 收納 現況表

(1998. 1. 1~1998. 3. 20)

理事 年會費	
김동영(고양) 9기분	30,000
김동석	30,000
김동수	30,000
김동수(수첩대)	12,000
김학원	150,000
김준연	30,000
김수부	60,000
김일효	60,000
김동영(임실)	30,000
김세연	30,000
김병균	60,000
김봉희	30,000
計	552,000

代議員 年會費	
김동일	20,000
김영희	20,000
김동철	20,000
김종헌	100,000
김장환	80,000
計	240,000

副會長 年會費	
김근희	300,000
김두원	600,000
김철희	300,000
김응순	300,000
計	1,500,000

世帶當 年會費	
김안천	50,000
김희천	10,000
김완수	10,000
計	70,000

※ 알 림 ※

순천김씨 중앙종친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순천김씨 대학생 교양강좌 수료생 전원에게 알립니다.

- 일 시 : 1998년 4월 26일(일) 11 : 00
- 장 소 : 서울시 중구 장교동 55번지 현암빌딩 28층 (한화그룹 대강당)
- 대 상 : 1986(1기)~1996(11기) 순천김씨 대학생 교양강좌 수료생(174명) 전원
- 연락처 : 중앙종친회
  전 화 : (02) 587-0529
  FAX : (02) 581-0529

위와 같이 1기~11기까지의 대학생 교양강좌 수료생 선배들을 모시고 순천김씨 중앙종친회 제9기 정기총회 일을 겸하여 순천김씨인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후배 1997년도 12기 교양강좌 수료생(대표 : 김기대) 일동이 초청합니다.

※ 이 날은 교양강좌 수료생 전원을 회원으로 한 宗窓會(가칭) 탄생의 첫모임이 될 것이며 부득이한 사정이 계신 선배님은 주소 현황을 중앙종친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작성에 필요합니다.

= 12기 교양강좌 수료생 일동 =

※ 原稿 寄稿 要望 ※

順天金氏 宗報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宗親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1. 先祖에 대한 行績과 思想 및 考證資料에 관한 건
2. 各 宗派 및 宗會의 現況 및 活動現況
3. 宗員의 敎養을 위한 內容
4. 모든 宗員의 專門分野別 參考할만한 글
5. 孝行, 善行等 우리 문중을 빛내고 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는 宗親
6. 그밖의 詩·隨筆·紀行文

위와 같은 내용의 投稿를 보내주시면 宗報에 게재하여 널리 알리겠습니다.

※ 武甲山 양경공 시삿날 ※

■ 양경공은 文武를 겸전한 장군으로서 국방에 공로가 크셨거니와 宰相으로서 정사를 잘 다스린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國王이 손수 지은 詩文으로 표현 諡號를 내리신 考證은 역사적인 산증인이다. ■

有勞甲冑曰襄 갑옷과 투구(무인)으로 멍에를 진 공로가 큼으로 襄(멍에양) 由議而制曰景 나라의 정사(議)를 다스림(制)에 밝다고 景(밝을경) 이렇듯 國王이 詩文을 지어 襄景이란 諡號를 받으신 할아버지시다.

襄景公 묘소의 山名은 武甲山이다. 武甲山은 경기도 광주군의 배후산이면서도 襄景公 山所의 龍尾다. 一說에 의하면 武甲山 精氣로 광주에 出衆한 武人과 名將이 많이 배출했다고 전해오는 名山으로 꼽힌다. 임진왜란에 殉國한 申砬 장군도 광주 태생으로 본군 곤지암에 묘가 있다. 襄景公께서도 장군이시였기에 武甲山에 뫼시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닌 天敎로 봐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襄景公은 유세에 드문 위대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한눈에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의 襄景公 주변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불성모양이다. 지난 가을(음 10月 3日) 환희의 시삿날 경덕재 앞마당에 성큼 들어 섰을 때 기쁨보다 슬픔이 앞섰다. 襄景公 얼굴이나 다름없는 경덕재가 흉칙한 모양으로 눈에 띄기 때문이다. 경덕재 건립연도까지는 알 수 없으나 언뜻 보아 40여년 전으로 추정된다. 그 당시 종친들의 생활상은 보나마나 궁핍한 보릿고개 시절에 나름대로 이렇게 큰 재실을 마련하기까지에는 오로지 투철한 숭조정신과 각고의 노력없이는 도저히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토록 어렵사리 건립한 경덕재가 기왓장이 술렁술렁 떨어져 내리고 천정은 뻥뚫린 구멍으로 하늘이 훤하게 내다 보인다. 부러진 문창살은 고칠 생각은 않고 아예 털어내버리고 비닐조각을 문틀에 대고 못을 박아서 임시로 바람막이를 한 문짝들이다. 이외에도 어느 한구석엔들 온전한 곳은 찾아볼 수가 없다. 마침내 경덕재는 뒤쪽으로 기울어 멀지 않아서 쓰러질 직전에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수년 아니 10여년간 방치한 까닭이다.

시사에 참여했던 종친 130여 분들도 이구동성으로 통탄을 마지 않았다. 해마다 시사 때에 그러했거니와 올 시사에도 예외없이 襄景公 양위 묘전에 제수를 올리고 제례를 마친 후 음식을 먹어야 福을 받는다고들 하면서 祈福심리에서 일까. 飮福酒 한잔 두잔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훌쩍 떠나간 뒤엔 경덕재는 마치 유령집같이 을씨년스럽다.

할아버지 무덤과 쓰러져 가는 재실 지붕엔 싸늘한 달빛만이 드리운다. 달빛은 좋고 나쁜 곳 가리지 않고 고루고루 하얗게 비친다. 모든 것들이 빈들녘의 바람처럼 세월을 몰고 다만 멀어져 간다.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나 무엇을 위해서 살았으며 또 무엇을 위해서 살겠는가를 물어본다. 우리 바로 윗대의 조상님들이 애써 지어놓은 경덕재 나마 수호하지 못하는 이마당에 언제 옛모습의 경덕재가 이 후미진 구석에 다시 나타날는지? 성사여부는 우리 후손들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사람들은 누구나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었을 때에는 곧 알아차리고 눈이 뒤집혀 호주머니를 여기저기 뒤진다. 허나 인간 스스로의 귀중한 존엄과 선량, 온순, 진실을 잃었을 때에 그 손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 속성일까? 종친 몇사람만 모이면 양경공 몇 대손 몇 세손이니 하면서 저마다 자부심을 자아내면서도 襄景公의 원초적인 존재가치로 말미암아 후손들 나름대로의 음덕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삿날 어느 종친이 명춘 4월에 종친 회장이 재실 건립을 시작한다고 귀띔을 해주었다. 이는 의타적인 발상에서 나온 말이라고 본다. 아무리 굴지의 재벌이라해도 의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예컨대 一木難支라. 큰집이 기울어 지는데 나무 하나로만 버틸 수 없다는 논리다. 어디까지나 종친 회장을 구심점으로 뭉쳐서 반드시 경덕재는 우리들 손으로 세워야만 보람도 크거니와 후세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종친 5천의 세대당 2만원씩만 모으면 1억이란 거금이 된다. 아무쪼록 협심단결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보자.

丁丑年 시삿날도 저물어 갈바람이 소근소근 귀엣말로 어서 집에들 돌아가란다. 三三五五 흩어지는 혈손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는 襄景公 할아버지 재실이야 무너지거나 말거나 말이 없으시고 다만 찾아주셨던 것만으로 대견스럽고 고마워하시면서 엷은 가을 햇살에 미소를 담아 보내시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총총이 산을 내려오다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금 할아버지 산소를 뒤돌아 보고 김박사 차에 몸을 실었다.

丁丑年 음력 10月 3日

김 명 환 小考

※ 알 림 ※

금년부터는 순천김씨 문중 선조들의 발자취를 찾아보는 현장 답사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소개되는 묘소와 재실, 서원 등을 각 지역 종친회별로 계획을 세워 순천김씨 중앙종친회로 보내주시면 각 지역 종친간의 교류와 친목을 다지는 혈족의 감회를 맛보도록 주선할 것입니다.

많은 계획과 이용바랍니다.

❊ 先祖配享院祠 一覽表 ❊

院祠名	配享位	所 在 地	春 享	秋 享
平陽君影堂	始祖	順天市 住岩面 住岩里	음 三, 六	十, 一
月潭祠	襄景公	聞慶市 加恩邑 鵲泉里	음 一, 一五	음 九, 九
芳春書院	先祖三相 南隱公進士公	海南郡 溪谷面 芳春里	음 四, 十	
崇節祠	默齋公兄弟	錦山郡 南二面 黑岩里		음 九, 二四
莊陵壇	節齋公	寧越郡 寧越邑 영흥리		음 十, 二四 (忌日)
肅慕殿	默齋公兄弟	公州市 反浦面 鶴峰里	음 二, 一四	음 十, 二四
月桂壇	節齋公	坡州市 泉峴面 東文里	음 四, 一	
濂川書院	節齋公	順天市 住岩面 竹林里	음二月丁亥日	
仁山書院	訥齋公	醴泉郡 龍門面 金谷里	三月初丁	
瀟陽書院	忍百堂公	聞慶市 加恩邑 前谷里	三月初丁	
四世忠烈門	壯毅公 貞敬夫人四世	安山市 瓦洞 102-10		음十月初 日曜日
玄洲書院	谿谷公	任實郡 只沙面 溪山里	三月十日	
花川書院	東籬公	安東市 豊川面 廣德里	三月中丁	
愚谷書院	竹日軒公	醴泉郡 下里面 愚谷里	음三月中丁	음九月中丁
仁祖廟庭	文忠公	서울 鍾路區 鍾路3街	五月初日曜	
龍潤祠	判事主簿兩位	海南郡 溪谷面 呂水里		음八月十~二十日

❊ 先祖時享日 ❊

顯 祖	諱	時享陰月日	墓 域 所 在
始祖引駕公	摠	十月 一日	順天市 住岩面 中住防築洞
典書公	乙財	十月 三日	利川市 大月面 郡梁里(蓋用垈)
襄景公	承霍	十月 三日	廣州郡 退村面 元堂里
持平公	台泳	十月 三日	公州市 長岐面 大橋里
殿直公	禔	十月 三日	利川市 大月面 郡梁里(蓋用垈)
參議公	有溫	十月十三日	醴泉郡 知保面 葛川里
判書公	有儉	十月 五日	保寧市 熊川邑 杜龍里
承旨公	有讓	十月 四日	驪州市 加南面 蓮臺里
總制公	陲	十月 三日	公州市 長岐面 大橋里
寧州公	碩孫	十月 三日	利川市 大月面 郡梁里(蓋用垈)
司藝公	仲孫	十月 五日	坡州市 坡平面 栗谷里
判事公	元石	十月十三日	醴泉郡 知保面 葛川里
翊贊公	亨石	十月十四日	醴泉郡 知保面 魚注里
藍浦公	元亨	九月 九日	順天市 藍浦村
司勇公	怒己	十月 五日	保寧市 熊川邑 杜龍里
禦侮公	球石	十月十五日	光陽市 光陽邑 世豊里(無仙亭)
郡守公	嗣興	十月 五日	槐山郡 槐山面
橫城公	嗣成	十月 十日	高靈郡 德谷面 長房里
尙衣院正公	嗣源	十月 九日	廣州郡 樂生面 板橋里
默齋公	宗漢	十月 五日	錦山郡 富利面 道坡里
節齋公	宗瑞	十月 三日	公州市 長岐面 大橋里
判書公	淮	十月 三日	利川市 大月面 郡梁里(蓋用垈)
沙月公	湘	十月 五日	尙州市 咸昌面 栗谷里
昇平公	若訇	十月十三日	安東市 豊川面 九潭里
司直公	若衡	十月十三日	安東市 豊川面 九潭里
木川公	若枰	十月十四日	安東市 豊川面 葛田里
司直公	以權	十月 十日	任實郡 三溪面 三隱里(粉土洞)
左通禮公	三鍊	十月 十日	高陽市 神穴里
鐵原公	玉	九月十五日	平南 孟山郡 玉泉面 安鶴里(仙遊峰)
牧使公	致庸	十月 六日	廣州郡 實村面 水陽里
訥齋公	慶言	十月十一日	醴泉郡 龍門面 堤洞(목골)
順天公	粹洪	十月 六日	尙州市 洛東面 花山里
司直公	粹澄	十月 十日	醴泉郡 下里面 芙草里
縣監公	粹涵	十月十三日	安東市 豊川面 九潭里

顯 祖	諱	時享陰月日	墓 域 所 在
府使公	粹潭	十月十三日	安東市 豊川面 九潭里
牧使公	粹謙	十月 五日	高陽市 一山區 城石洞
司勇公	粹澔	十月十三日	安東市 豊川面 九潭里
進士公	希尹	十月十四日	安東市 豊川面 葛田里
參議公	希呂	十月 五日	楊州郡 陵縣面 道下里
柯谷公	希說	十月初日曜日	光明市 鴛鴦洞
南隱公	孝友	十月 十日	海南郡 溪谷面 芳春里
進士公	孝孫	十月十二日	海南郡 山二面 九星里
節道使公	孝宥	十月十一日	龍仁市 駒城面 寶亭里
縣令公	純善	十月十一日	廣州郡 實村面 水陽里
府使公	純粹	十月 九日	華城郡 南陽面 活草里
參奉公	仲男	九月十五日	松京南十里 青郊面 裕陵里
平陽君	舜臯	十月 六日	尙州市 洛東面 花山里(大寺洞)
晩翠軒公	允欽	十月十二日	醴泉郡 龍門面 沙夫洞
畏菴公	汝昉	十月 十日	始興市 秀岩面 瓦里
禦侮公	偘	十月十三日	醴泉郡 知保面 葛川里
建公將軍	博	十月十三日	安東市 豊川面 九潭里
忠孝堂公	協	十月初六日	醴泉郡 知保面 葛川西洞
禦侮公	富春	十月十四日	安東市 豊川面 葛田里
忍百堂公	樂春	十月 五日	聞慶市 加恩邑 瀟陽里
水北亭公	興國	十月 五日	楊州郡 陵縣面 道下里
縣監公	鳳祥	九月十九日	麟蹄郡 南面 富坪里
谿谷公	復興	十月 三日	任實郡 三溪面 三隱里
伴月堂公	孝宗	十月十二日	龜尾市 玉溪洞(文林)
竹日軒公	光燁	十月 十日	醴泉郡 下里面 芙草里(加西洞)
夢仙亭公	光潤	十月 三日	廣州郡 退村面 元堂里
北渚公	瑩	十月 十日	始興市 秀岩面 瓦里
白石堂公	靈	十月 五日	高陽市 碧蹄邑 城石里(九耳)
忠義衛公	允文	十月十三日	醴泉郡 知保面 葛川里(司直公墓下)
晩悟軒公	允欽	十月十三日	醴泉郡 知保面 葛川里
松磵公	允明	十月十三日	安東市 西後面 松川里(燕院西)
松陰公	允思	十月十三日	醴泉郡 知保面 葛川里(判事公墓下)
東籬公	允安	十月 八日	安東市 一直面 光淵里
龜岩公	慶長	十月十二日	龜尾市 玉溪洞(文林)
永慕齋公	潤道	十月十七日	星州郡 金水面 廣山洞

第十三回 大학생 교양강좌 안내

중앙종친회에서는 지난 86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교양강좌를 금년도 第十三回 수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전국의 종친 여러분께서는 2세 교육사업의 일환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順天金氏의 자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第十三回 대학생 교양강좌에 참석코자 하는 희망자는 중앙종친회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욕실과 샤워장、화장실들을 남자용、여자용으로 신축하고 여자숙소도 신축하였음。

■강좌 예정일 : 八月 十三日~十七日(五日間)

■강좌 장소 :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방축동 始祖齋室(同源齋)

■강 사 : 宗親中에서 전원 위촉(대학교수、법관、학자 등)

■강의 제목 : 族譜의 연원과 편집내용、家禮상식、顯祖의 略史 · 생활법률 및 일반상식、기타

■수강신청 자격 : 順天金氏 남녀 대학생과 동등의 학력 소지자(고교를 졸업한 자 포함)

■입소자 결정 : 七月 二十日까지 접수하고 30명 정도를 선발하여 개별통지 함

■입소일 : 추후 서면으로 개별통지함

■수강료 : 무료(숙식비와 교재비 등 모든 경비를 중앙종친회에서 전담함)

■기 타 : 수강 수료증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개별 우송함

■문의 사항 : 전화 (02) 587~0529 또는 서면 문의할 것 FAX (02) 581~0529

順天金氏中央宗親會
宗 務 部

『順天金氏中央宗親會 指定病院』 順·金 宗親의 많은 利用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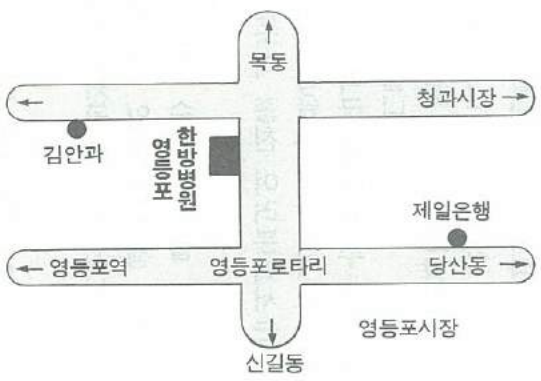
최고의 한방병원

"정확한 진단과 질 높은 치료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 우수한 의료진 확보로 인술을 베푸는 우리고장 최고의 한방병원 —

■ 중풍크리닉
■ 중풍(뇌졸중, 반신마비)
■ 입원치료
■ 약물요법
■ 침구요법
■ 물리요법
■ 화침요법

■ 한방병원
■ 한방부인과
■ 한방소아과
■ 한방신경정신과
■ 한방 안 · 이비인후과
■ 침구과



영등포한방병원… 이렇게 운영됩니다

이사장 김 철 준

- ♠ 중풍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 ♠ 통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 ♠ 화병(우울증) 크리닉을 운영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 야간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무료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운 영 안 내 ■

▶ 진료시간

- 평 일 오전 9 : 00 ~ 오후 6 : 00
- 야간진료 오전 6 : 00 ~ 오후 9 : 00
- 토 요 일 오전 9 : 00 ~ 오후 5 : 00
- 일 요 일 오전 10 : 00 ~ 12 : 00

(단, 응급환자는 24시간 진료)

▶ 부속시설

- 입원실, 한방종합검진실, 한방물리치료실, 중풍운동치료실
- 구급차 24시간 대기

- 한 · 양방 협진 통해 고급 의료시술
- 치료율 높은 중풍크리닉
- 최상의 한약재 공급
- 상담실 운영 · 건의함 설치
- 모든 신경통

(화침요법으로 신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 **영등포한방병원**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3-1
TEL : 678-8225, 0848, 8889

이사회의

1998년 2월 26일 18:00에 많은 이사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회 발전 전반에 걸친 토의사항을 김종식 회장님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격의없는 의사발언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모임의 골격은 첫째 현재의 임원중 이사의 정족수가 문제로 제기되어 현 인원 150여명을 300명선으로 줄이기로 하였고, 둘째 임원회비 현실화로서는 회장 200만원, 부회장 50만원, 명예회장·고문·간사·이사는 10만원, 대의원 5만원, 일반세대 2만원선으로 인상안이 결의되었으며, 셋째 장학사업은 꼭 이번기부터는 실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넷째 동원재관리인 선정 및 명의통일화에 관한 사항과, 다섯째 대동보 출간에 관하여, 여섯째 김종식 회장님 연임에 관하여, 일곱째 98회기년도의 종친회 발전방안에 관한 주요행사에 관하여는 모두 집행부에서 현실성 있는 행사를 집행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던 바, 그중 대동보 출간에 관하여는 현존의 족보 편집을 집행하신 순김의 산증인들이 연로하시어 가급적 빨리 그분들이 계실 때 전중파를 초월한 합본의 대동보 출간을 실행하고자 함에 전 이사님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었다. 이로써 98년도 첫번째 이사회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 종회 발전을 기원하면서 마감하였다.

『不孝의 시대』 孝 부활시킨 시묘 3년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면 3년 시묘(侍墓)도 짧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꾸만 시들어져 가는 효(孝)가 되살아났으면 더 바랄게 없겠습니다."

모친상을 당한 뒤 3년 시묘에 들어가 음력으로 만 2년만인 26일 새벽 5시 대상(大祥·두 돌 되는 제사)을 지내고 탈상한 박상근(朴相根·66·울산 동구 동부동)씨. 그는 96년 4월 15일(음력 28일) 노환으로 숨진 어머니(당시 86세)를 고향인 충북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마을 뒷산에 모시면서 시묘에 들어갔다.

산소 아랫자락에 스티로폼과 판자로 만든 2평짜리 천막이 그의 거처. 전기도, 전화도 없이 아들이 사다준 라디오를 통해 뉴스를 듣는게 세상소식을 접하는 유일한 창구였다.

시묘기간 동안 박씨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김없이 새벽 5시면 어머니 묘소에 문안인사를 드린 뒤 500여m 떨어진 마을에서 샘물을 길어다 직접 지은 메(제삿밥)을 하루 다섯 끼 올리고 곡(哭)을 하며 묘소를 지켰다.

시묘와 함께 박씨는 『어머니를 여원 죄인이 어찌 즐거움을 쫓을 수 있겠느냐』며 즐기던 담배와 술도 끊었다.

충주 박씨 집성촌인 제천시 두학동에서 태어나 어릴 때 아버지가 할아버지 묘소에서 시묘하는 것을 보며 자란 박씨는 27세가 되던 61년에는 아버지가 별세하자 동생들과 함께 3년간 시묘를 해 대한민국 국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탈상을 하니 어머니를 조상님에게 완전히 떠나 보내는 것 같아 더 서운하다』는 박씨는 앞으로 열흘동안 묘소를 더 지킨 뒤 오는 5일 담제를 지내고 하산할 예정이다.

人事

理事 金應淳
理事 金學元
光州宗親會長 金昌源 副會長에 任함
金東胡 理事에 任함

一九九七年 十二月 二十四日
順天金氏中央宗親會

宗親短信

金相訓 종친 司試合格

3月 2日 연수원 入所

海南郡 山二面 乾村里 519번지에 居住하는 南隱公의 15代孫인 琠述(字、玉振) 宗親의 長子 相訓 宗親이 司法考試(29期)에 合格하여 지난 3月 2日 연수원에 入所하였다.

相訓 종친은 現在 延世大學校 大學院 二年에 在學中인 學究派로서 前途가 자못 촉망된다.(一無)

回甲宴

❖金炳龍 종친은 3월 8일 일요일 회갑을 맞이하여 올림픽공원내 올림픽 파크텔 본관 1층 연회장에서 회갑연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슬하에는 容載、周載、秉載와 맏며느리 김재남이 있다.(一無)

華燭

❖金弘泰 理事님의 따님 金珉廷양은 12月 27日 토요일 오후 1시 상제리제 웨딩홀에서 劉善圭氏의 아드님 劉臣鍾군과 華燭을 밝혔다. 賀客으로 金浩淵 幹事長이 參禮하여 두 사람의 結婚을 祝福하였다.(一無)

❖金東基 理事의 長男 세환군은 차동수씨의 장녀 봉순양과 98년 2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 강동구 명일동 명성교회에서 혼례식을 올렸다. 축하합니다.(一無)

❖김일용 종친의 둘째 아드님 김성민 군과 박덕심 여사의 셋째 따님 노현희 양은 지난 3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새남터성당에서 여러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다. 축하합니다.(一無)

訃音

■취송(翠松) 金鍾鎬 본회 고문께서는 84세를 보람있게 사시다가 천안시 직산면 상덕리 자택에서 노환으로 1월 12일 별세하시어 1월 14일 성환 천주교 묘지에 안장하시었습니다.

취송 고문께서는 평소 정의감이 강하시고 불의에는 추상같은 강인한 일면이 있는가 하면 동족간에는 언제나 봄바람 같이 훈훈하고 인자하실 뿐만이 아니라 애족심이 누구보다도 강하시어 종중사업이라면 자기사업이나 심지어는 자기 건강도 돌보지 않고 열성을 다하여 봉사하여 오셨습니다.

회고하면 나는 십수년전인 1983년 계해 10월 2일 우리 씨족의 숙원사업이었던 대동보 편찬사업을 위한 위원회를 결성하고 취송 대부님이 회장에 취임 하시면서부터 같이 宗事를 거들어 왔으니 실로 감회가 남다릅니다. 1984년 갑자 11월 30일 드디어 大同譜 6권을 완간 배포한 후 시조 사적지 정화사업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 회장이 되시면서 시조 묘소의 봉분을 크게 개축하고 묘비의 개수와 작명등을 새로이 하고 지금의 同源齋와 影堂을 다시 세우는 등 크게 공적을 세웠으며 양경공의 묘역(景德齋) 또한 신도비 건립과 묘소를 개사초 하는 등의 공로가 있었습니다.

1995년 4월 5일에는 시조 사적지 수호관리위원회장으로서 수호관리는 물론이고 沿革碑를 세워 동원재의 사적 틀을 정립한 업적 또한 적지 않으셨으며 본 중앙종친회가 창립되면서부터 고문직을 맡아 중앙종친회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93년 4월 25일에는 제5기 정기총회 석상에서 공로패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91년 10월 5일 가곡공파종친회를 결성하고 그 이사장이 되시면서 가곡공묘소를 대대적으로 정화하고 1988년 9월 10일에는 실로 100년만에 墓祀를 복원하는 사업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셨으며 천안 아산종친회장과 충남、대전종친회 고문등을 역임 하시면서 희생적인 봉사와 눈부신 업적을 찬양하며 우리 모두가 추앙하여 마지 않습니다. 몇해전에는 도리어 나의 건강을 염려하시던 분이 홀연히 먼저 가시니 會者定離라 하지만 人生의 無常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이승에서 못다 이루신 일은 配位이신 경주최병희 여사와 아드님 資淵 그리고 따님 인숙、미경、소연 등에게 맡기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천당에 드시옵소서. 취송 대부님의 명복을 거듭 빕니다.(一無)

■광주시 남구 진월동 삼익세라믹 아파트 101동 1104호에 사시는 仁源(金在燮) 종친께서는 身恙으로 서울 삼성의료원에 입원 가료 중 지난 2월 3일 오전 5시에 별세하여 광주시 북구 생룡동에 있는 順天金氏 世葬山下에 2월 5일 안장하였다.

在燮 종친은 우리 中央宗親會의 理事로 종친회 발전에 공헌하였고 동원재의 有司로서 다년간 활약하였으며 進士公派宗親會에도 기여한 바 있어 모든 종친이 애도하는 바이다. 본회에서는 병상에도 문병하였고 조화도 올려서 조의를 표한 바 있다. 유족으로는 金愛順 부인과 相龍、相珉 兄弟와 외동딸 美善이 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一無)

順天金氏宗報

本 宗報는 順天金氏中央宗親會員 家口當 1部씩을 無償으로 配布합니다.

發行人 金鍾植
編輯室長 金浩淵

發行所
順天金氏中央宗親會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07-47
電話 : 02-587-0529
FAX : 02-581-0529
印刷所 : 文苑文化社

회장 인사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다사다난하였던 정축년을 보내고 희망찬 무인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시련으로 불어닥친 IMF의 장을 넘겨야 되는 절대절명의 고비를 지혜롭게 헤쳐 나아가야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슬기롭게 넘기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때 우리는 6·25 참변으로 말미암아 처절한 참화 속에서도 의연히 일어나 세계의 내노라 하는 강대국들 틈을 누비고 갈고 닦아 세계 무역거래 단위로는 제11위라는 엄청난 국력으로까지 신장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방만하고 너무 과도한 정책 실정으로 말미암아 외화를 낭비하는 사치풍조로 치닫더니 급기야는 국가부도라는 국치의 위기까지 몰린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에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좀더 현명한 자세와 기지를 한데 모아 다같이 협력하고 노력하여 다시는 세계화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의 경제 대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종친회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여 내실 있는 종회 발전을 기하도록 알차게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도 살피고 확인하여 실행하여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 순천김씨 중앙종친회에서는 98년도를 순·김 문중 중흥의 해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우리 선조님들이 일구어 놓은 훌륭한 업적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상적인 만남과 회합의 기회만 가져왔습니다만, 앞으로의 종친회 활동은 현장 감각을 일깨워 우리 선조들이 그 시대에 베푼 훌륭한 업적을 재조명하여 보고 또한 각 지역 종친회별로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묘소와 재실, 또는 서원 등을 찾아 보고 한 뿌리임을 느낄 수 있도록 교류하면서 그간 오랫동안 방치되다시피하여 상당히 훼손되어 있는 양경공 묘소의 재실을 비롯한 각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 핏줄의 유산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러므로 내가 하지 않으면 아니될 현실의 심각성을 대처하도록 하여 종친회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식을 고취시켜야 하겠습니다. 종친회의 참여의식이야말로 옛말처럼 「百聞이 不如一見」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순천김씨 중앙종친회에서는 지난 종보 16호에 널리 소개드린 바와 같이 우리 뿌리를 가장 빛낸 분인 절재(김종서)공의 업적을 현양하고 그분의 고결한 발자취를 다시금 일깨우는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는 순차적으로 우리 조상님들 중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전 종친들에게 그분들로 하여금 존경심을 느끼고 한핏줄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우도록 하고자 합니다.

종친 여러분 작금의 현실은 어둡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일수록 힘을 내어 희망찬 미래를 지향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너와 내가 아닌 한핏줄로서의 힘을 도출하여 기필코 새 역사를 창조하는 대열에 동참하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회장단 회의

1998년 3월 11일(11:00)에 전국에서 고루 참여하신 부회장님들을 모시고 중앙종친회 회의실에서 종회 발전에 기틀을 다지고자 지난 2월 26일 이사회의에서 다룬 바 있는 안건을 보완하여 제9기 정기총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다음의 몇가지를 중점 토의하였다.

(1) 현재의 회칙 3장 8조 1항의 당연직 부회장제도 의에 능력있는 종친을 추대한다로 보완하기로 하였고,

(2) 회칙 3장 7조의 이사의 정족수 100명 내외를 30명선으로 한다로 하고,

(3) 신설제도로서 이사의 수를 줄이고 「운영위원」 제도를 신설하여 종회 운영의 묘를 꾀한다.

(4) 회칙 8장 부칙 28조에 의거 파종회 및 지역 종친회의 독립성. 본회는 타 종회 및 지역 종친회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그 고유 업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으나 시조 묘역의 관리 운영은 중앙종친회에서 직접 관장하여 전국 종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곳은 우리 문중의 시작인 곳이므로 체계적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중앙종친회에서 직접 관장하여야 한다로 제정하여 종회 운영에 합리화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종회 골간이 되는 중요 안건을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오랜만의 회장단 회의를 마치고 태동식당으로 옮겨 화기애애한 정담을 늦도록 나누고 아쉬운 헤어짐을 가졌다.

會長團 會議光景(於, 中央宗親會 會議室)

公 告

順天金氏中央宗親會
第九期 定期總會 開催 公告

會則 第十二條 一項에 依據 一九九八年 第九期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함을 公告합니다.(個別通知 省略)

一九九八年 三月 二十四日

順天金氏中央宗親會
會長 金鍾植

一。日 時 : 一九九八年 四月 二十六日(日)
(十一時)

二。場 所 : 서울特別市 中區 長橋洞 五五番地
玄岩빌딩 二十八層
한화그룹大講堂

▼連絡處 : 中央宗親會

▼電 話 : 五八七~〇五二九番

▼전철2호선 : 을지로입구역에서 200m거리 을지로2가 중소기업은행 三一빌딩앞

三。參席範圍
一、中央宗親會 全任員 및 代議員
二、全國地域宗親會 任員과 뜻있는 宗親

四。議 案
一、業務報告
二、第九期 收入支出 決算報告
三、第十期 豫算案 審議
四、任員 改選의 件
五、其他 討議事項

全國地域宗親會長께서는 順天金氏宗報가 到着되는대로 宗親 및 全任員께 널리 連絡하여 많이 參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